

추모 발원문

세연을 다하신 안채란 이사님의 공적을 함께 기리어 추모하여, 지혜로운 인연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길 발원합니다.

교육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단단한 일념으로 후학양성의 현장에서 몸으로 행하신 일생의 노고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귀범입니다. 덕화를 받은 많은 이들이 슬픔을 더하고 있지만, 이는 다시금 우리 사회에 기여하라는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육발전 뚜렷한 발자취는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는 바탕이 되었으니, 덕화를 입은 사람들은 선업의 공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생에 사사로움 없어 후덕하고 아름다운 공덕행을 쌓았으니, 너른 심성과 지대한 원력은 선명하게 남아, 추모하는 모두에게 마음 깊이 자리할 것입니다.

이승에 남은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숭고한 뜻에 인연 맺은 사람들이 거듭하여 발원하오니, 바라시던 정토에서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평화를 누리시어 수많은 인연들을 이롭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